

■광주지법서 열린 호남 첫 국민참여재판 참관기

배심원 평결, 재판부와 일치했다

18개월 딸 살해 혐의 20대 집유 석방 공판주의 기대 부응 성공 가능성 보여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쳐 온 피고인에 대해 배심원 여러분이 따뜻한 사회구성원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처지는 이해되지만, 자식을 죽이는 일이 감정이 넘쳐서 기우머리는 아닙니다.”

변호인과 검사 배심원단을 향해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배심원들의 얼굴에는 긴장된 표정이 흘렀다. 배심원들은 1시간 30여분간 평의(評議)를 한 뒤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내놓았다.

호남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상해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망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신세에 대해 상해 및 살인 혐의를, 변호인은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했다.

검찰은 배심원들이 자칫 온정·감성주의로 기울어질 것을 우려해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변호인은 “신씨가 우울증세로 11차례나 치료를 받았고, 산후 우

울증까지 겹쳐 극도로 예민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사건을 저지른 만큼 통상의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상해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망, 즉 상해치사 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평의만 1시간 30분=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이 끝난 뒤 배심원단은 1시간 30분동안 평의를 마친 뒤 평의 의견서를 재판장에게 전달했다. 배심원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 7·무죄 2명의 의견을, 6 대 3 으로 집행유예 석방과 실형 선고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장인 정경현 부장판사는 “배

심원 평의 결과와 제시 형량을 충분히 존중하고 재판부의 의견과도 별로 차이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5개월된 어린 딸이 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 점, 응급조치를 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비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살인사건을 인정했지만 정황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석방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정을 나서는 배심원들은 출가분하면서 도법의 이름으로 인간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때문인지 사뭇 무거운 표정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21일 오후 개정됐다. 재판에 앞서 이날 오전 선정된 12명의 배심원이 선서를 하고 있다.

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제1형사부(국민참여재판 전담부·부장판사 정경현)의 심리로 호남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토대로 죄와 벌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지가 딱하고 심신상실로 인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관용을 호소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의 피고인인 신모(여·20)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밤 10시경 광주시 북구 운암동 자신의 집에서 18개월된 딸아이가 침실문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넘어뜨려 타박상을 입히고, 딸의 목을 20초간 눌러 뇌출혈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변호인 열띤 공방=검찰은 신씨의 고의적인 살인 혐의에 대해 초점을 맞춰 배심원을 설득했고, 변

▲국민참여재판=재판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 목적으로 기존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3원 외에 국민 배심원단을 재판에 도입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판단을 배심원단의 결정을 토대로 선고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됐다.

살인·강도치사·뇌물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피고인이 원할 경우 9명의 배심원단이 재판에 참여한다. 배심원들의 평결은 ‘권고적’ 의견에 그치게 된다.

배심원 참석률 50% 밑돌아 불출석자 과태료 여부 ‘관심’

호남권 첫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참석률이 50%를 밑돌았다. 상당수 배심원 후보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배심원 후보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될 수 있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돼 출석 통지서가 발송된 지역 주민 100명 가운데 36명이 출석했다. 이날 출석자는 남성 16명, 여성 20명으로 여성이 약간 많았다.

법원은 이중 생후 4개월 된 딸을 데리고 온 여성과 소아마비로 장시간 앉아있기 불편한 여성 등 2명에 대해

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배심원 면제 처분을 내리고 귀가조치했다

하지만, 22명은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송달불능’ 처리됐다. 또 36명은 ‘불참 사유서’를 법원 측에 보내와 법원은 이 중 17명에 대해 ‘불참 사유’가 있다고 보고 배심원 후보자 선정정을 취소 결정했다.

따라서 ‘송달불능’과 ‘불참 사유서’ 제출자 등을 제외할 경우 이날 출석률은 46%에 그쳤다.

법원은 아무런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6명과 특별히 불참사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19명에 대해서는 재판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검사·변호사, 배심원 선정부터 치열한 신경전

“슬픈 영화 보면 눈물 흘리나요”

이성과 걸러내려는 변호사의 질문

“임신 청소년 어떻게 생각하나”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을 흘리는 분 있죠?”(검사) “어린 나이에 임신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나요?”(변호사)

21일 광주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앞서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검사와 변호사간 신경전은 치열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심원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우울증 등으로 생후 18개월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비정함 산모’ 신모(여·20)씨가 어렵게 살아온 사연을 배심원들이 감성적으로 받아들여 평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맞섰다.

검찰 측은 ‘감성 평결’로 자칫 무리한 감정이 이뤄질 경우 재판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가급적 감성적인 배심원을 배제하기 위한 질문을 많이 던졌다.

반면,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딸을 고의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없고,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 비교적 감성적인 배심원을 선택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 또 변호인 측은 피고가 10대 미혼중임 점을 감안해 배심원 후보 중 미혼 남녀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하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배심원 후보자 34명을 상대로 ‘배심원성향’을 파악하는 심문과정을 거친 뒤 유·불리를 따져 기피자 명단을 작성해 최종적으로 12명의 배심원(배심원 9명·예비 배심원 3명)을 선정했다. 이 중 남성과 여성은 각각 6명이었고, 연령별로는 40대가 4명, 30대와 50대 각각 3명, 60대 2명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주부 4명 ▲회사원 3명 ▲무직 2명 ▲공무원·사업·농업이 각각 1명씩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사현장 불법 트집 돈 뜯은 인터넷 방송 사장·기자 구속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양부남·주심판사 이경수)는 20일 공사현장의 불법 행위를 트집 잡아 수익원의 돈을 뜯어낸 D인터넷 방송국 사장 오모(49)씨와 기자 권모(44)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영남·호남 등지의 도로공사와 탠 공사현장을 돌며 불법행위를 취재한 뒤 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5개 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직원 150여명과 전국 16개 지역 방송국 등 조직을 거느린 인터넷 방송사의 대표이사인 오씨를 지난해 10월 환경전문지 출신인 권씨를 취재팀장으로 한 기동취재팀을 꾸리고 전국 공사현장을 돌며 불법 사실을 취재해 왔다.

하지만, 권씨는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현장 소장들에게 사장 오씨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오씨는 소장들을 경기도에 있는 방송사 본사로 불러들여 금품을 요구했다.

오씨가 요구한 돈은 각 공사현장별로 1천만 원이었으며, 액수가 적을 경우에는 돈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소장 중 상당수는 대부분 폐기물 일시 방치 등 사안이 가벼워 형사 입건 대상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기사화되거나 고발될 경우 발주처와 감독기관의 조사를 받고 회사의 문책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의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오씨 등의 금응거해 내역서에 14개 건설업체로부터 7천여만원이 입금돼 있는 점을 밝혀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죄를 추궁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488) 김장두



다중의견건축사업자 KCC

(주)금속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형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용감한 형제, 경찰 도와 절도범 검거

○호프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절도범이 경찰과 대치하다 달아났으나 용감한 형제와 경찰의 추격에 의해 체포.

○광주서부경찰에 의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20·광산구 신창동)씨는 지난 20일 새벽 4시35분경 광주시 서구 유촌동 한 호프집에서 금품같이 등 1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냈다는 것.

○김씨는 금고문을 열다가 호프집 주인에게 발각됐으며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철제 풍경을 뜯어 경찰을 위협하며 격렬히 대치하다 도주.

○경찰의 추격전 속에 때 마침 충남 공주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인근 주민 이모(20)씨 형제도 가세했으며 김씨는 700여m를 달아나다가 경찰과 이씨 형제에 의해 결국 검거.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주)세종투어
☎062) 222-2209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

세종투어 여행상품 우리V카드 결제시
할부유 최소 10만원부터

다들 좋아하는 [세종투어] 특가 상품

Welcome 1	₩419,000	→	₩200,000
Welcome 2	₩429,000	→	₩220,000
Welcome 3	₩439,000	→	₩230,000

세계적인 브랜드 [세종투어] 특가 상품

₩1,190,000	→	₩150,000
₩1,290,000	→	₩100,000

세계적인 브랜드 [세종투어] 특가 상품

₩280,000	→	₩140,000
₩290,000	→	₩99,000

NO-비! NO-비용! 불가능은 중국여행!

₩550,000	→	₩300,000
₩640,000	→	₩350,000
₩700,000	→	₩450,000